



천둥치던 밤 농촌마을 ‘우박’ 공포

30일 밤 9시쯤 동부지역에 10~20분 가량 쏟아져
주민 “총 쏘는 것 같았다… 생전 처음 겪은 충격”

제18호 태풍 ‘미탁’ 북상을 앞두고 제주에 난데없이 우박이 쏟아졌다.

지난달 30일 제주에는 태풍 미탁의 전면수렴대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렸다. 특히 이날 오후 9시를 전후해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와 송당, 우도 등 동부 지역에는 동전 크기 만한 우박이 쏟아져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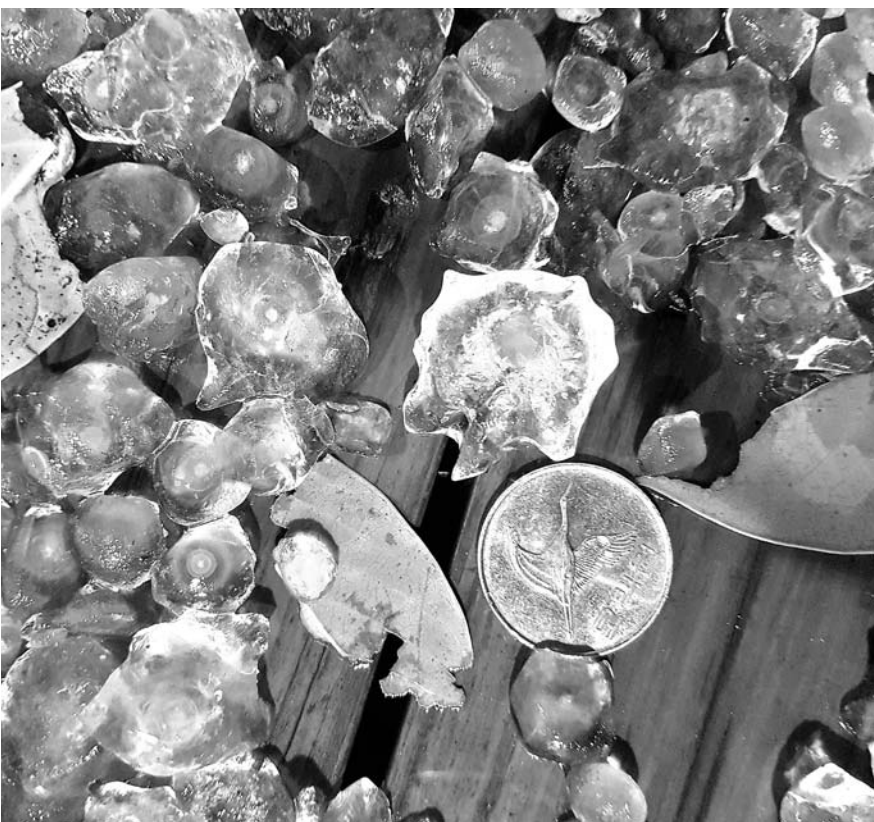
우박의 위력은 차량 플라스틱 선바이저(차광판)를 관통하는 수준이었으며, 약 10~20분 정도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좌읍 세화리 주민 정의준씨는 “우박이 내리는 시간 동안 통신과 전기까지 두절됐다 다시 들어왔다”며 “우박 내리는 소리가 마치 총소리

처럼 컸다. 잔디 마당에 물이 들어차는데 얼음물처럼 차가웠고, 생전 처음 겪는 이상기후에 무척 당혹스러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랫쪽 따뜻한 공기가 상승, 위에 있던 찬공기와 만나 얼음이 되고, 이 얼음이 녹아서 떨어지면 비가 된다”며 “하지만 녹지 않은 채 내리면 우박이 되는데 제주에서는 흔치 않고 내륙에서는 가을쯤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측소에서는 우박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우박으로 119신고는 없었지만, 송당리 농가 2곳이 당근 줄기가 꺾이는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오후 9시를 전후해 제주시 구좌읍 일대에 쏟아진 우박. 사진=독자 정의준씨 제공

송은범기자

한라산 상세관측시스템 3대 낙뢰 맞아 작동 멈춤

한라산에 설치된 일부 지역별상세관측시스템(AWS)이 낙뢰로 인해 작동을 멈췄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라산에 설치된 한라생태숲과 성판악 AWS를 제외한 삼각봉, 어리목, 사재비, 뿔세오름, 영실, 진달래밭 AWS가 낙뢰를 맞아 지난달 30일 고장났다. 이 가운데 삼각봉, 사재비, 영실 AWS는 고장이 심해 제17호 태풍 ‘미탁’이 지나가는 3일 이후에야 수리가 가능하다. 나머지 AWS는 약간의 시스템 오류만 발견돼 3일 0시를 기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낙뢰가 떨어진 지난달 30일 제주에는 태풍 미탁의 전면수렴대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삼각봉, 사재비, 영실 AWS는 안전상의 문제로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수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태풍 미탁 내습 때 해당 구간 강수량 측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독자제보 750-2232

제주, 기소중지자 도피처 되나

검거된 기소중지자 3명 중 1명 제주서 붙잡혀
공소시효 만료까지 양식장·뱃일 등 하며 은신

범죄 혐의가 중범죄에도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가 중지된 ‘기소 중지자’ 3명 중 1명은 제주에서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된 기소중지자 3744명 가운데 38%에 이르는 1422명이 제주에서 적발됐다.

제주에 이어 목포가 754명, 포항

241명, 인천 240명으로 뒤를 이었다. 기소중지자 가운데는 지명수배자 583명도 포함됐는데, 인천 200명, 제주 115명, 목포 112명 순으로 검거됐다.

실제 제주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해 2월 13~14일 이틀간 제주에서 여객선을 이용해 목포로 빠져 나가려던 기소중지자 16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해경은 대부분의 기소중지자가 도피나 공소시효 만료를 목적으로 양

식장이나 선원으로 일하며 은신하기 위해 제주를 찾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섬이라는 특수성을 악용해 범죄자들이 숨어 지내거나 선원으로 위장취업해 신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해경이 수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해경이 적발한 외사범 및 국제범죄자는 2016년 23건·164명, 2017년 14건·31명, 2018년 23건·63명이며, 올해에도 8월까지 15건·27명을 검거했다. 범죄 유형은 대부분 ‘출입국 질서문란’이다. 송은범기자

아파트서 일가족 4명 숨진채 발견

제주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후 4시30분쯤 제주시 연동 한 아파트에서 김모(42)씨와 그의 부인 현모(40)씨, 초등학교 1학년·5학년 자녀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는 김씨 자녀들이 다니는 초

등학교 선생님이 의해 이뤄졌다.

4명 모두에게 타살 혐의점이 없었고 유서 형식의 문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김씨 등의 경제적 상황 등도 조사해 숨진 경위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도로 달리던 차량 화재

지난달 30일 오후 7시52분쯤 제주시 도련동 소재 연산로에서 오토(48)씨가 몰던 카니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분 만에 진압됐다.

이 불로 카니발이 전소해 소방서 추산 37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운전자 오씨를 상대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송은범기자

“정신질환 편견 해소 가장 중요”

제주연구원 미래포럼

강지연 제주도의사회장

“조기 발견체계 미흡해
정신질환 만성화 초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체계 등이 없어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지연 회장

제주연구원은 1일 오후 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제주도의회,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제40회 제주미래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제주도민의 행복지수 up을 위한 지역사회 마음 케어 시스템 set up 전략’이며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전략 ▷정신건강현황 및 정책방향 ▷제주도민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과제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지연 제주도의사회 회장은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묻지마 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문제 해결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해도 바로 병원에 가지않고 약 15% 정도만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편견 해소와 우호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건강검진시 만 40세와 66세에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검진의 우울증 검진이 유일한 정신건강검진”이라며 “정신질환 초발 연령대인 16~24세에 대한 조기 발견 체계가 미흡해 결국 정신질환이 만성화되는 경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정신질환은 국민 다수의 문제이며 개인과 가정에 큰 고통을 초래하고 국가 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만큼 정신건강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2017년 기준 보건복지부 현황을 보면 제주지역 내 자살예방센터는 전무한 상태다. 정신요양병원은 1곳,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곳, 정신재활시설 4곳, 정신건강복지센터 3곳(광역 1곳·기초 2곳), 정신의료기관 9곳(국립 0곳·민간 9곳) 등으로 열악했다. 전 연구위원은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대와 수요자 사회 통합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서비스 개선 등을 주문했다. 이소진기자

도매시장서 비상품감귤 첫 적발

도합동단속반 불시 단속
선과장 7곳에서 5t 출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감귤출하연합회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서울가락도매시장을 불시에 지도단속을 한 결과 도내 선과장 7개소(11건)를 비상품감귤 출하 및 품질검사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에서는 비상품감귤 출하 4건(2.34t)과 품질검사 미이행 7건(2.59t)이 적발됐다. 이번 적발된 도내 선과장에 대해서는 물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는 물론 향후

행·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예정이다. 조상윤기자

도매시장 지도 점검은 극조생 노지감귤 첫 출하가 지난달 26일 이뤄짐에 따라 감귤출하 동향은 물론 타과일 품질, 소비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농협공판장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과 과일 생산량 증가 등 과일시장 여건이 좋지 않아 대부분의 과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감귤도 출하 초기부터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가격형성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 서울은 물론 지방 도매시장까지 확대해 불시 점검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배려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물당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